



LENT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역대기 하 36,14-16.19-23

### 화답송



(후렴) 내가너를 생각하지않는다 면, 내허가입천장에 달라붙으리 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에페소서 2,4-10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 요한 3,14-21

**성가** | 입당성가 [123]1,2 예물준비 [512]  
영 성 체 [178] 파견성가 [123]2,3

###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송은경 데레사	송서희
임순남 엘리사벳	익명
임순남 엘리사벳	제의방
임순남 엘리사벳	이경숙 스킨라스티카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이중근 요셉	학부모회
이중근 요셉	익명
김미경	이태주레오, 장민우레아
고현실	이경숙 스킨라스티카
김상욱	강해숙 바울라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김지영 유스티나
최차혜, 김경련	김지영 유스티나
홍마이클, 홍피터	홍화자 홍비오
생미사	봉헌
라스 카셀라, 홍경은로사, 퀸 카셀라	홍화자 홍비오
장동환 헨리코	정제임스 사도요한 가족
양피터 건강회복	서경자 율리아
박알버트 건강회복	양미숙 마리아
이형정 비비안나 암에서 캐유	이은지 아가다
유데이빗, 유데니엘, 유케이디영육건강	가족
석귀순 마리아 김구태 영육건강	김이엘리자베스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3월 10일	정유진	민완준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한데레사 이유스티나
3월 17일	김진수	김규현	진달래	진달래	민덕미	한데레사 이유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47,590단

**▶유아세례 축하드립니다.**



서준후 안드레아      백선욱 레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사순시기에 함께 실천해요~**

1)커피 한잔등의 기호를 줄여 공동체 모금 활동에 기여:  
사순 저금통 2)건강등의 이유로 미사, 공동체 모임 참여가 불가능한 분들께 주보 보내기

**▶판공성사**

사순 시기중의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본당 또는 다른곳에서 성사를 보신분들은 성사표를 사무실 앞 통에 넣어주세요.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3/10(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각 단체마다
3/17(일)	울뜨레아	4명 필요 :
3/24(일)	사목회	십자가 1 주송1, 초2

**▶성삼일과 부활성야 전례 안내**

주님만찬 성목요일(3/28): 밤8시 대성당  
주님수난 성금요일(3/29):밤 7시 십자가의 길부터 대성당  
부활 성야(3/30): 밤10시 대성당  
\*부활 성야 미사중 세례와 견진성사 예식이 있습니다

**▶맨하탄 성령기도회 모임**

매월 3째주 화, 찬양과 미사: 6:30pm~8:00pm, 다미안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성기도, 심령기도, 성경묵상, 찬양, 미사 드리는 기도회로 초대합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929-208-5147



**▶Youth 교리반(교리와 활동)**

대상: 6학년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 모든 청소년  
모임: 미사후 성당 뒤에서 교사와 교육관 2D로 이동  
문의: Sr.HyoJu 347-834-5784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3월 10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오니,  
미사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 추억은 주름을 지운다.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된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연락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간을 내서 직접 학교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교로 찾아온 제자들을 만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약속이나 한 듯 늘 이런 대화로 만남이 시작 되기 때문입니다.

“어쩐 너는 나이가 들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아니예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때 그대로 신데요?”

사제지간의 이런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이없다고 놀릴 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모두 사실로 느껴진 인사말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웠던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게 돼도 우리는 그를 첫 만남 때의 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무 살 때 처음 본 제자는 세월이 흘러 외모가 아무리 변해도 신기하게 제겐 늘 스무 살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억이 주는 신비한 ‘착시효과’입니다.

만약에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가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 제자를 스무 살이 아닌 현재의 나이로 인지했을 겁니다.

추억은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시간을 이겨내는 고마운 선물입니다. 좋은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지금보다 젊게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꾸 늘어만 가는 주름살. 요즘 젊어 보이게 하는 시술도 많았는데, 저도 한번 받아볼까 하는 유혹이 문득문득 고개를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추억’의 힘으로 뿌리쳐 보렵니다. 피부에 뭐라도 하나 바르는 것보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먼저임을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교수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윈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 ▶양말 판매

좋은 원단으로 부담없이 신을수 있는 남성, 여성 양말입니다. 기부받은 제품으로 수익금은 바자회 기금으로 입금됩니다. 가격: 15불(6켄레), 미사후 친교실

### ▶마르꼬복음 성경필사 마친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예비신자: 탁지수, 강라이언, 김하워드

## 천주교 신자로서 유아세례는 꼭 해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제를 교육으로 치환하여 놓고 보면 답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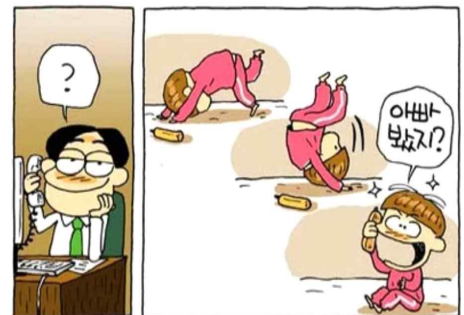
그 어떤 부모님도 아이가 교육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관에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신앙 없이 키우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안에는 이미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부모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은 현실로 개화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함께하면서 시작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유아 세례 예식서도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식서는 어린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행 예식서(2018년 발행)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이 같은 질문은 유아 세례가 어린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모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 봤지? ☺



ㅎㅎ